

제 6 차 대 한 두 경 부 종 양 학 회

□ 연 제 초 록 □

— 1 —

피부확장기를 이용한 두피재건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

정 섭 · 박 병 윤

피부가 늘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하여 1976년 Radovan에 의해 현대적인 연부조직확장이 시작되었다. 이 방법은 탈모증의 치료, 유방의 재건, 문신 또는 광범위한 반흔의 제거, 양성종양의 절제 및 합지증이나 소이증의 치료등 최근 성형외과의 여러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근래에 head trauma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두경부에 unstable scar 내지는 wound closure에 종종 어려운점을 겪게된다. 이러한 경우에 조직확장기를 사용함으로 매우 용이하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이의 장점으로는 두피인 경우 고식적인 피부이식 방법으로 초래되는 인위적인 탈모증을 예방 할수 있으며, 미용적인 면에서도 월등한 결과를 얻을수 있을뿐만 아니라 두개골 표면에 골막이 없는 bared bone일 경우에도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재건 할수 있다는 장점으로 근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교실에서는 조직확장기를 사용한 두경부 재건에 있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2 —

활배근 근피판을 이용한 광범위 두경부조직결손 재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광현 · 성명훈 · 진태훈

두경부영역의 광범위한 수술적 절제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조직결손의 재건 방법 또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결손부위가 크지 않으면 피부이식이나 regional skin flap을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으나 결손 부위가 광범위한 경우는 두경부외과 의사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의 재건술로 많은 종류의 pedicled myocutaneous flap 및 microvascular free flap의 술식이 고안되어 시술되고 있으나 이들 여러방법들은 개개의 장, 단점이 있으며 모든 방법이 각각 적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저자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성행하기 시작한 여러 근피판의 술식중 가장 크고 신뢰할 만한 근피판의 하나인 활배근 근피판을 이용한 두경부 조직결손의 재건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저자들은 진행된 후두암 환자 2례, 측두골 악성종양 1례 및 이개부 피부의 편평상피암 환자 1례에서 활배근 근피판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조직결손을 재건할 수 있었다. 그중 1예에서는 동반된 식도결손을 재건하기 위해 대흉근 근피판을 함께 이용하였다.

— 3 —

두경부병변 치료에 있어서의 CO₂ 레이저 이용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장은열 · 이명진 · 홍남표
안희영 · 차창일

1972년 Jaco와 strong이 후두질환에 CO₂ 레이저를 사용한 이래 최근들어 후두질환은 물론 구강 및 부비동질환등의 두경부 질환의 치료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CO₂ 레이저의 장점은 고식적인 수술방법에 비해 원하는 병변부위를 매우 정확하게 제거하므로 기능보